

5월

제29호

발행인
출판부

LWV 문예협회

편집인
고영주



남은 이파리

오늘은 왠지 눈물이 납니다
넷물 위에 눈물이 떨어집니다
눈물이 뚝뚝 흘러갑니다
눈물이 울며 갑니다.



그 푸르던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이제 너와 나의 이파리만 남았습니다.
언젠가는 손을 놓아야 함을 알면서도
우린 한낱한시에 같이 가자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조심 한다더니
지금 내 사랑이 넘어져 아픕니다.
남은 이파리가 떨어질까 봐
오늘은 왠지 눈물이 납니다.

<12, 2017>

비 정지용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물리는
소소리바람.

앞서거니 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山)새 걸음

여울 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멋은 듯
새삼 돋는 빗낫

붉은 잎 잎
소란히 밟고 간다.



****시 해설은 어찌 보면 무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나 감상은 주관적 견해이니 독자의 사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돌에 그늘이 차고’

간결한 이 말속에 함축된 의미는 먹구름이 몰려온다. 비구름이 밀려온다. 갑자기 바위 사이, 돌 밑에 그늘이 짙어진다. 금방 비가 올 징후가 보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1. 기승전결 형(1-2연 비나리기 직전/ 3-4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 —또는 비 오기 직전 산새들의 행동 묘사/5-6연 빗물이 여울져 흐름 /7-8연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줄기)

2. 소재 —비

3. 주제—비 내리는 풍경

4. 성격—관조적, 감각적 회화적 묘사.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

5. 구절 해설

***돌에 그늘이 차고**—검은 구름이 몰려와 그늘진 모습

***소소리바람** —회오리바람의 방언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중의법

(1) 빗방울이 새의 꼬리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빗방울이 땅바닥에 떨어지자마자 튕기는 부채꼴 모습을 새의 꼬리로 표현.

(2) 산새들이 비가 올 조짐을 알고 급히 피신하려는 동작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중의법

(1)빗줄기가 가늘고 기다랗게 군데군데 뿌려지는 모습

(2) 야위고 메말라 윤기 없고 거친 다리로 서둘러 피신하는 산새의 걷는 모습

<위의 해석 중 (1)번 해석이 새에 비유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시인다운 감각/ (2)번 해석은 1-2연과 5-6연의 연결이 시간상으로 아주 부자연스럽다 >

- * 수척한 흰 물살—가느다랗게 흐르는 여울(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
 - * 손가락 펴고—빗물이 줄기줄기 흐르는 모양
 - * 소란히 밟고 간다—똑똑 / 후두둑 소리를 내며 간다
 - * 명사로 끝남(바람, 걸음, 물살, 빗낫)—여운과 여백의 미
6. 활유법, 의인법 사용



=====

작자: 정지용—<1902-1950> 충북 옥천 출생,
 일본 도오시샤 대학 영문과
 남북 작가—이화여전 교수
 경향신문 주간
 잡지 <문장> <어린이나라> 주관

- * ‘향수’에서 보듯 토속적 언어의 마술사라고 부른다.
- *천주교 신자, 세례명은 프란치스코
- *1950년 6,25 전쟁이 나자 피난길에 오르지 못하고 서울에 남았음
- *문인 김기림, 박영희 등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됨.
- *그 후 공산군에 끌려가 이감 도중 또는 평양 감옥에서 폭사한 것으로 추정.
- *인천 상륙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수복한 후에 그 생사 확인이 불분명함.

작품: 향수(1927), 고향, 유리창, 호수, 조찬.

오늘의 추천 시

호수

정지용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서포와 그 어머니

서포 김만중의 입석상 제막식이 남해 용문사에서 열렸다. 저물어가는 서산에 빠꾸기는 피 울음을 토해내고 무심한 갈매기 소리도 저녁놀에 서글프다.

만삭의 몸으로 피난 중에 배에서 태어난 유복자 만중은 후에 공조판서와 대제학을 지냈지만,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하고 장희빈에 빠져 정사를 그르치는 것을 보고 바른말을 참지 못한 그의 강직성 때문에 유배를 당하자 그는 불효를 탄식했다.

“어미를 받들고자 나라를 위해 바른말을 못한다면 오히려 이 어머니에 대한 불효이니라”라고 어머니는 그렇게 위로했다.

유배지에서 사씨남정기를 지어 다시 간했지만, 어머니의 임종조차 보지 못한 채 남해 노도(橈島)에서 파란과 통한의 생애 56세로 마감한다.

강원도 금성, 평안도 선천을 거쳐 세 번째 유배 생활을 할 때는 가시 울타리에 가두어 둔다는 '가극안치(加棘安置)'라는 참혹한 형벌이 내려졌다.

그 어머니는 병자호란으로 강화성이 함락되자 남편 김익겸이 분신 자결하여 일찍이 청상과부가 되었다. 열일곱 살에 만아들 만기를 낳고 스물한 살에 만중을 낳았다. 미망인으로 평생 소복을 하고 연회에 참석하지 않으며 풍류 소리를 듣지 않았다. 윤씨 부인은 학문에 조예가 깊었다. 책을 빌려와 손수 베껴서 자식을 엄하게 가르쳤다. 아비 없이 버릇없는 자식으로 자랄까 훈계했다. 자식을 잘못 가르치면 죽어 남편을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다.

베를 짜고 수를 놓으며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며 두 아들을 과거에 급제시키고 당대 최고의 학자로 키워낸 현철한 조선의 맹모였다.

만중은 옛글을 읽어드리고 색동옷 입고 재롱부리며 어머니를 늘 기쁘게 해주었다.

자식 뒷바라지로 평생을 힘겹게 보낸 어머니, 자나 깨나 자신의 안부만을 걱정하는 어머니, 병고에 시달려도 돌볼 수 없는 자신의 불효를 가슴 아파하며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유배지에서 몽자소설의 효사인 구운몽을 지었다. 양소유가 팔선녀를 거느리고 세상 부귀영화를 잠시 누렸지만, 인생은 한바탕 부질없는 꿈에 지나지 않으니 결국 불법에 귀의한다는 내용이다.

어머니 부음을 듣고 불초 고애자 만중이 읊혈하고 삼가 기록했다는 '정경부인 윤 씨행장'에는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서려 있다.

"오늘 아침 어머니 그림다는 말 쓰자 하니 글자도 되기 전에 눈물이 이미 흥건하다. 몇 번이나 붓을 적셨다가 다시 던져 버렸는고" 윤 씨 생신 아침에 지었다는 이 시가 가슴을 파고든다.

<고영주>

(한국일보 오피니언 Friday, August 11, 2006)



어머님,
편히 쉬고 계시나요?

6. 25

어찌 잊으랴! 그날을——

미 장성의 아들 142명이 한국전에 참전했고 그중 35명이 전사했다. 미군은 약 3만6천5백 여명의 전사자를 냈다.

최대 격전지 백마고지는 10일 동안 고지 주인이 24번이나 바뀌었다. 최후의 교두보 다부동 전투는 칠흑의 밤 치열한 백병전에서 도무지 적과 아군을 식별할 수 없었다.

민머리는 인민군, 머리가 잡히면 국군, 서로 머리를 더듬으며 찌르고 죽이는 처절한 육박전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비극의 막을 내렸다. 3년 1개월 2일 동안 벌어진 전쟁이었다.

38선 대신 다시 군사분계선(MDL)이 생겼다. 우리는 형제끼리 싸웠다. 민족끼리 값진 피를 흘렸다. 절대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어찌 보면 전쟁의 끝은 잣더미와 죽음과 절망뿐 미친짓이 아닌가? <‘아름다운 메아리’에서>

==좀 길지만 인상 깊은 글입니다==

6.25의 생생한 증언

나의 6.25의 추억

강홍식



< 1부 >

1950년 6월 25일 북괴의 38선 남침에 이어 이틀 뒤인 27일에는 서울이 함락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라디오 방송에서는 서울을 끝까지 사수할 거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포성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함께 하숙하고 있는 두 형과 함께 집으로 내려갈 짐을 꾸렸다.



우리가 서울역에서 남행열차에 오른 것은 27일 밤이었다.

열차가 한강 철교를 지나 서울을 빠져나올 때는 비가 주룩주룩 요란하게 내리고 있었다.

우리가 탄 열차가 한강을 건너자마자 철교는 폭파되었다는데 우린 그런 걸 상상이나 했으랴.

우리는 천안에서 내려 장항선으로 갈아타고 예산 삼교역에서 내려 고덕면 고향으로 걸어서 무사히 내려왔다. 사람들마다 얼굴엔 불안한 빛이 가득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강이 북괴군 마지막 저지선이라고 했지만, 2주 일도 채 되지않아 인민군과 자원 인민군들이 떼 지어 우리 동네까지 밀고 내려왔다.

경찰은 후퇴하면서 공산당을 탈당 전향한 보도 연맹 단원을 불러모아 북괴군에 동조할까 봐 모조리 처형해 버렸다. 그들 중에는 이웃에 살던 의사님도 끼어있었다.

당시는, 일본 강점기에 항일하던 식자들 대부분은 공산당원이었다. 악명 높은 박헌영도 예산 사람이다.

만일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다면 공산당에 가입했을지도 모른다.

그 의사의 아들은 초등학교 내 아래 학년이었는데 아버지가 처형당한 것을 알게 되자 아버지를 죽인 순경을 죽이겠다고 도끼를 휘두르며 소리소리 질렀다.

후퇴하던 경찰관은 그 애의 소란을 보고 멀찌감치에서 머리를 조준, 총을 퍼부었다.

나는 우리집 창문을 통해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 보았다.

그런 참상은 내가 태어나 처음이다.

나는 국군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산에서 들에서 몇날을 숨어 지냈다,

인민위원, 민청 여성동맹원들은 좀 넉넉하게 산다 싶은 이나 공부 좀 해서 유식한 이들은 반동분자라며 밤사이에 잡아다가 도끼, 삽자루, 곡괭이 등으로 쳐 죽였다.

서울에서 내려온 북괴 인민군, 의용군들은 경찰 주재소(현 파출소)에 머물면서 동네 치안을 맡았다.

인민 의용군 중에는 작은형 고교 후배가 있었는데 그는 형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인민군들이 우익 반동들 가정을 습격, 체포할 거라는 정보를 미리 귀띔해주는 바람에 우리 집 식구들은 다행히 위급을 모면할 수 있었다.

그가 1차로 의용군에 지원한 것은 국회의원인 아버지가 부산으로 피신한 것을 알게 되면 처형당할 것을 염려해서 인민군에 위장 입대한 거라며, 자기는 일선에 배치되는 대로 국군에 투항할 생각이란다. 그리고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했으니 국군은 미군과 함께 곧 진격해 오리라 했다. 그는 기회를 보아서 탈출해야겠다며 형에게 도피에 쓰일 돈을 꾸어달라고 했다.

아버지께서는 곧 돈뭉치를 꺼내셔서 그에게 건네주셨다.

며칠 후, 그는 전방으로 배치되었다며 작별인사를 하러 왔다.

그동안 많은 동네 사람들이 밤이면 인민위원회 민청 당원에게 잡혀가서 죽고, 젊은이들은 인민 의용군으로 끌려갔다.

< 2부 >



초가을 구월 말 먼 북쪽 하늘에서 밤새 섬광이 번쩍번쩍거렸다.
(인천 상륙 작전이었다)

그런 후 며칠 사이에 민청 간부들이 웬일인지 눈앞에서 사라져 보이질 않았다. 국군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문에 우리 모두 태극기를 흔들며 그들을 환영하러 장터 앞 길에 나왔는데 숨어있던 인민군들이 환영나온 군중을 향해 갑자기 따발총을 쏘아대는 바람에 아수라장이 돼버리기도 했다.

(10월 중순 경?)

산으로 도망간 빨갱이들은 밤이면 동네로 내려와 동민들을 괴롭혔다.

돌아온 국군, 경찰들은 젊은 학생들을 모아 학도 의용군을 조직, 급한대로 총기 조작법을 일러주었다. 그리고 가야산에 숨어든 (충남 가야산:

예산군, 서산군 사이에 위치) 인민군 패잔병과 빨지산을 도벌하는데 동원 되었다. 한데, 겁 없이 전진한 우리 학도병 소대는 어느 틈에 적병에 포위되고 말았다. 나는 움푹 패인 낮은 곳에 엎드려 총을 앞으로 겨누고 있는데 총소리와 함께 뭔가가 잔등을 때려치는 걸 느꼈다.

"아. 총을 맞았으니 이젠 죽는구나 ! " 생각하면서도 그다지 많이 아픈 것 같지 않아 고개를 돌려보니 나뭇가지가 등에 떨어져 걸려있었던 것이다.

얼만가가 지난 뒤 미 탱크의 지원사격이 시작되었고, 우리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산속 숨어있는 적과의 싸움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사방을 살피고 경계하면서 계속 산등성이를 올라야 했다.

그러던 중, 언덕에 굴을 파고 나뭇가지로 입구를 가려놓은 그들의

아지트를 하나 발견했다. 우리 굴 입구에서 안쪽을 향해 총을 몇 발 쏘고는 "손 들고 나왔!" 소리쳤다. "나오지 않으면 수류탄을 던질 테다!" 그제야 검은 몸뚱이 바지에 잠바를 걸친, 배가 불룩한 여자가 손을 들고나왔다.

"어! 이게 누구야?" 여맹위원장, 옆집 의사의 딸이 아닌가.. 국민학교 두 학년 윗반으로 어렸을 땐 그녀와 함께 놀기도 했었다. 그녀 뒤엔 남루한 옷차림의 남자가 대여섯 두 손을 들고나왔다. 인민군 패잔병 중엔 투항하는 이가 많았으나 동네 공산당 빨지산은 저항이 거셌었다. 그녀가 동료한테 마구 거칠게 매 맞는 걸 가까이서 지켜보기란 여간 거북한 게 아니었다. 극렬히 저항하는 적은 당장에 처단해 버렸는데 그녀는 나를 보며 "날 죽이기야 하겠나.." 안도하는 눈빛이었다.

우리 많은 무기와 실탄, 식량 등을 노획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산꼭대기로 도망간 적은 더 이상 추적 말고 포위 대기하라는 명이다.

그리고 전투 경험이 없는 학도병은 하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우리는 부상으로 걷지 못 하는 전우들을 들것에 실어 내려왔고, 생포한 빨지산 북괴 인민군들은 양손을 뒤로 묶어 한 줄로 엮어서 산 밑으로 끌고 왔다.

지방민 빨지산은 경찰에 인계하고, 북괴 인민군은 헌병에 인계했다. 산 아래 막사에서 하룻밤을 휴식한 후, 시래기 국과 주먹밥으로 요기하고 또 2차 수색에 나섰다.

이번에는 발악하는 적을 대응하느라 서로 숨어서 총질했다. 우리 쪽이 숫적으로 월등히 우세한 걸 알고는 그들은 산 능선을 타고 넘어 도망쳤다. 노루가 뛰어가듯 도망치는 적에게 우리 여럿이

총을 쏘았지만 그들은 맞은 것 같지 않고 능선 너머로 도망쳐버렸다.

우린 적을 많이 죽이진 못 했지만 아군은 수많은 적을 사살했다고 들었다. 물론 아군의 희생도 적지 않았겠지만 우리 쪽 희생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3부>

2차 토벌전투로 적은 거의 소탕 되었다고 학도병은 산에서 내려오게 했고 18세 이상의 대원은 군에 편입되어서 전진하는 강원도 부대로 떠나보내고, 16세인 내게는 집에 가서 공부하고 더 커서 오란다. 덩치 큰 16 ~17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나이를 속이고 국군에 입대했다.

난 그들이 부러웠고 총기를 반납하고 돌아설 때는 눈물이 핑 돌았다. 집에 돌아와서는 한동안 산에서의 일들이 꿈에 나타나 자면서도 식은 땀을 흘리곤 했었다.

의사집 그 딸은 민청단장의 애를 임신 했다는 뒷얘기가 들려왔고, 대전형무소에서 복역 중 출산, 조기 석방 되었다는 후문이다,

내가 아프거나 다치면 그리도 친절히 치료해 주던 의사 아저씨였는데 왜 처형되어야 했었나..

나와 뛰놀던 의사님의 아들은 어찌자고 그토록 참혹하게 경찰의 총에 맞아, 두부 터지듯 머리통이 터지는 참상을 이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는지..

내가 수색하던 아지트 움막에서는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의사님 딸과 마주쳐야 했었는지..

6.25 그날이 오면, 내게는 이런저런 상념들이 착잡하게 되살아나 내 가슴을 짓누른다.

최근에는 이런 생각도 든다 그 의사집 딸 여맹위원장이 출산한 민청
위원장 아이가 남자라면 자라면서 부모의 과거를 엄마에게 듣고 어
떤 사람이 되었을까?

외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동조하려 공산당에 가입했다가
해방후 남한 반공국가 수립이후 공산당을 탈당해 보도연맹 회원으
로 등록 가입되어 있었는데 6.25 당시 후퇴하는 경찰들이 쳐내려오
는 북괴군에 동조할까 봐 처형했다 또 외삼촌이 아버지를 처형한 경
찰을 복수한다 도끼 들고 난동하다 경찰 총에 살해된 사실과 부모의
공산당 빨치산 생활 그리고 어머니가 임신 중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
다가 자기를 출산한 사실 알았으면...

51년생이겠으니 68세의 사람일텐데 절의 종이 되었을까 목사나 신
부가 되었을까? (금년이 2019년)

어려서 그애 어머니랑 교회에 같이 나갔던 기억이 있다

운동 권 친구를 사귄으면 종북주의자 무리에 섞여 있지 않을까 생각
도 든다



=====

**== 원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 동네 문예지*****

내 생명의 메아리, 내 인생 고백의 광장, 우리 동네 문예지—
 무르익은 과일 향이 달콤한 우리 동네 문예지—
 <호사유피, 인사유명> 책 속에 내가 있는 우리 동네 문예지—
 너도 보고, 나도 보고, 이웃이 보고 감동하는 우리 동네 문예지—
 먼 훗날 우리의 글이 누군가를 위해 미래가 되는 우리 동네 문예지—

우리는 지금 진지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선후배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회원들의 성원과 동참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민 생활의 파노라마> 출판 기념일:
11월 7일 (목요일)**

우리 동네 의사분들과 우리 주치의님들이 함께 만든 유익한
 “건강 의학 코너”와 우리 회원들의 각종 전문성
 (문학, 신앙, 음악, 미술, 무예, 서예, 조각 등)의
 진수를 보여 주는 “전문인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생활의 파노라마(Panorama)>

- ****1. 원고 마감: 6월 30일까지.
2. 원고 형식: 시, 콩트, 수필.
(영문일 경우, 한글 번역 동시에 제출 바람)
 3. 원고 분량: A4 용지 2 page 내외.
 4. 한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은 걱정하실 필요 없음.
 5. 원고 내용의 적부 심사는 편집부에서 결정함.
 6. 원고 보내실 곳:

w.gil.choi@gmail.com (최원길)

tulpinsook@gmail.com (최인숙)

tedskiem@gmail.com (김석흥)

youngjko@hotmail.com (고영주)

(원고는 e-mail로만 접수함)

7. 원고 문의 및 연락처: 310-970-2707 고영주



